

종합병원 간호사의 공감력,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

이보람¹, 임효남^{2*}, 이미향², 이경화²
¹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²건양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n Geriatric Nursing Practice of General Hospital Nurses

Bo Ram Lee¹, Hyo Nam Lim^{2*}, Mi Hyang Lee², Kyung Hwa Lee²
¹Master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공감력,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D시에 소재한 일개 종합병원 간호사 178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은 2020년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상자의 공감력,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간호실천 수준은 각각 3.65 ± 0.40 점, 3.52 ± 0.82 점, 3.26 ± 0.43 점이었다. 노인간호실천은 성별($t=-2.33$, $p=.021$), 근무형태($t=-2.55$, $p=.01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인간호실천은 공감력($r=.59$, $p<.001$), 노인에 대한 태도($r=-.30$,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력($\beta=.59$, $p<.001$)과 성별($\beta=.29$, $p=.004$)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에 대한 노인간호실천의 설명력은 38.2%로 확인되었다. 이상 연구결과를 통해 종합병원 간호사의 공감력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정서적 영역 관련된 사고 과정을 확장하고 경험적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혼합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성별에 따른 노인간호실천의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general hospital nurse empathy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n nursing practice. Data were collected from 178 nurses at a general hospital located in D city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December 9 to December 16, 2020. Empathy,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level of geriatric nursing practice were scored at 3.65 ± 0.40 , 3.52 ± 0.82 , and 3.26 ± 0.43 points, respectively. Geriatric nursing practice showed significant gender ($t=-2.33$, $p=.021$) and work type ($t=-2.55$, $p=.012$) associated differences. In addition, geriatric nursing practic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mpathy ($r=.59$, $p<.001$)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r=-.30$, $p<.001$). The factors that influenced geriatric nursing practice were empathy ($\beta=.59$, $p<.001$) and gender ($\beta=.29$, $p=.004$),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for geriatric nursing practice was 38.2%. The study shows that a mixed program aimed at expanding emotionally-related thinking processe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and that this program should include experiential learning aimed at enhancing nurse empathy. In addition, we recommend that a further study be conducted on gender-associated geriatric nursing practice differences.

Keywords : Nurses, Aged, Empathy, Attitude, Geriatric Nursing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발췌, 수정, 보완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HyoNam Lim(Konyang University)

email: hnlim@konyang.ac.kr

Received December 19, 2022

Accepted February 3, 2023

Revised February 2, 2023

Published February 28,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22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7.5%를 차지하고 있다[1]. 2017년 65세 고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국내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2011년 275개소에서 2021년 319개소로 증가하여 연 평균 1.5% 증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수진자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수진 횟수는 2011년 1천 4백만 명에서 2021년 4천 2백만 명으로 증가하였다[2].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노인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종합병원 간호사는 노인환자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여 급성기 치료에 대한 간호뿐 아니라 노인환자의 특수성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종합병원 간호사들은 노인환자들에게 일반 성인환자들과 큰 차이가 없는 질병 위주의 간호를 제공하고 있다[3]. 노인환자는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와 손상, 질병의 비전형적인 발현, 합병증 발생 증가, 항상성 유지능력 감소, 여러 만성질환이 복합적으로 존재 등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노인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한 가지 질병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며, 질병들과 기저 병리 및 잠재적인 건강문제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가능한 모든 문제를 복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4]. 종합병원 간호사는 노인환자와 노인건강문제의 복합성을 이해하여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환자들은 만성질환과 다양한 건강요구도를 가지고 있어 신체적 차이를 넘어 공감과 전이적 이해를 통한 간호가 더욱 필요하다[5]. 간호에서의 공감은 환자의 어려움에 감정을 이입하여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이다[6].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경험처럼 느끼는 감정은 상대방을 돕는 행위로 연결된다[7]. 공감은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치료적 관계를 맺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8,9], 높은 공감적 관심은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연결된다[10]. 공감력은 노인환자를 더욱 다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11]. 의료기술과 치료약제가 잘 발달된 의료환경일수록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인간적 관계는 간과될 수 있는데[12], 종합병원 간호사는 공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공감이 간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태도는 행동에도 영향을 주어 노인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간호사의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는 중요하다[13]. 태도는 대상과의 직접적인 경험과 풍부한 지식,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어진다[14]. 간호사는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며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15].

노인환자는 전반적으로 간호의존도가 높고[16], 노인을 간호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함께 노화와 관련된 변화 때문에 복잡하다[17]. 노인환자의 건강은 노인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11], 간호사는 노인환자에게 질 높은 노인간호실천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인간호실천의 목적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 심리·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여 보다 긍정적인 삶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18].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실천도를 증진하거나 간호실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19].

노인환자와 노인환자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간호실천에 관련된 요인을 찾기 위하여 노인돌봄태도, 감성지능, 조직몰입, 전문직 자아개념, 도덕적 민감성 등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11,20,21]. 하지만 노인간호실천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주로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11,20,21].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노인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에서 노인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공감력, 노인에게 대한 태도와 노인간호실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가 노인환자에 대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간호사의 공감력, 노인에게 대한 태도와 노인간호실천을 살펴보고,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 향상을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노인간호실천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공감력, 노인에게 대한 태도가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공감력, 노인에게 대한 태도 및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력,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간호실천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공감력,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간호실천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감력,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간호실천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종합병원에서 노인을 직접 간호하며 안정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경력 1년 이상[22]의 간호사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아병동,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등에서 근무하는 노인을 직접 간호하지 않은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되었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α) .05, 검정력(1- β) .95, 효과크기(f^2)를 중간크기인 .15, 예측요인 10개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 172명이 산출되었다. 설문지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206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204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서명 누락,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총 17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10문항, 공감력 60문항, 노인에 대한 태도 20문항, 노인간호실천 16문항, 총 10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공감력

공감력은 Monica[23]의 공감측정도구(Empathy Construct Rating Scale ; ECRS)를 기반으로 박은숙 등[2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다시 송은선[12]이 문항은 그대로 유지하며 대상자를 아동에서 노인으로 변경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하위요인으로 '부족한 공감' 15문항과 '잘 발달 된 공감'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60개 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이다. '부족한 공감' 15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송은선[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2.3.2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Sanders 등[25]이 개발한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ing)를 임영신 등[26]이 변안한 것을 사용했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역문항: 3, 6, 7, 10, 12, 15, 18번)으로 구성되었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상반되는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에서 7점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Sanders 등은 평점평균 3.5-4.5점을 중립적인 태도로 제시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임영신 등[2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3.3 노인간호실천

노인간호실천은 최희자[27]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했다.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간호실천이 잘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였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 보호를 위해 K대학교병원 임상시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승인번호: KYUH 2020-09-010-004). 자료수집은 2020년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D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종합병원에서 시행하였으며, 해당 병원 간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해당 기관의 승인 후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태로 직접 방문하여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연구 참여 중단 및 동의 철회,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자발적 서면 동의 이후 자료수집절차를 진행하였고, 동의서와 설문지는 밀봉된 봉투에 담아 일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후 연구자가 회수하였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익명화한 후 데이터를 저장하였고 데이터가 보관된 컴퓨터는 연구자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보안을 유지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작성한 설문자료는 동의서와 설문지를 분리하여 지정된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장에 보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3년 후 분석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폐기할 것이고, 연구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또한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공감력,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간호실천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력,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간호실천 정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공감력,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간호실천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나이는 30세 미만 118명(66.3%)으로 가장 많았고, 30세~39세가 46명(25.8%), 40세 이상이 14명(7.9%)의 순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165명(92.7%), 남자가 13명(7.3%)이었고, 종교는 없는 대상자가 116명(65.2%)으로 종교가 있는 대상자 62명(34.8)보다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137명(77.0%), 기혼이 41명(23.0%)이었고, 최종학력은 학사가 147명(82.6%), 석사 이상이 19명(10.7%), 전문학사가 12명(6.7%) 순으로 확인되었다. 근무부서는 병동 83명(46.6%), 중환자실 48명(27.0%), 응급실 24명(13.5%), 기타 23명(12.9%) 순이었고, 기타 부서로는 내시경실, 외래, 투석실이 있었다.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자가 148명(83.1%)이었다. 경력은 5년 이하가 95명(53.4%), 5년

초과~10년 이하가 50명(28.1%), 10년 초과가 33명(18.5%)으로 확인되었고, 직위는 일반간호사 154명(86.5%), 책임간호사 이상이 24명(13.5%)이었으며 노인동거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98명(55.1%), 동거경험이 있는 대상자 80명(44.9%)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8)

Spec.	Categories	N (%)	M±SD
Age(Year)	<30	118(66.3)	29.55±5.36
	30~39	46(25.8)	
	≥40	14(7.9)	
Gender	Male	13(7.3)	
	Female	165(92.7)	
Religion	Have	62(34.8)	
	Have not	116(65.2)	
Marital status	Single	137(77.0)	
	Married	41(23.0)	
Education level completed	College	12(6.7)	
	Bachelor	147(82.6)	
	Master	19(10.7)	
Work unit	Ward	83(46.6)	
	ER	24(13.5)	
	ICU	48(27.0)	
	Etc	23(12.9)	
Type of work	Non-shift	30(16.9)	
	Shift work	148(83.1)	
Working experience as a nurse (year)	≤5	95(53.4)	7.13±5.31
	5), ≤10	50(28.1)	
	>10	33(18.5)	
Job position	Staff nurse	154(86.5)	
	≥Charge nurse	24(18.5)	
Elderly cohabitation experience	Yes	80(44.9)	
	No	98(55.1)	

*ER=Emergency room
ICU=Intensive care unit

3.2 대상자의 공감력,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간호실천 정도

대상자의 공감력,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간호실천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공감력은 평균 3.65±0.40점(Range: 1~5),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3.52±0.82점(Range: 1-7),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 정도는 평균 3.26±0.43(Range: 1-4)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Empathy,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N=178)

Variable	M±SD	Range
Empathy	3.65 ± 0.40	1-5
Attitude toward the Elderly	3.52 ± 0.82	1-7
Geriatric Nursing Practice	3.26 ± 0.43	1-4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력,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간호실천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공감력은 결혼상태($t=-2.03, p=.044$), 최종학력($F=5.12, p=.007$), 근무형태($t=-2.97, p=.00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상태에서는 미혼보다 기혼이 공감력이 높

았고, 최종학력에서는 사후분석 결과 전문학사와 학사보다 석사 이상이 공감력이 높았다. 근무형태에서는 3교대 근무보다 상근근무가 공감력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결혼형태($t=2.03, p=.044$)와 근무형태($t=2.65, p=.009$)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보다 기혼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3교대 근무보다 상근근무가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 정도는 성별($t=-2.33, p=.021$), 근무형태($t=-2.55, p=.01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보단 여성이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대근무보다는 상근근무가 노인간호실천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Degree of Empathy,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78)

Spec.	Categories	Empathy		Attitude toward the Elderly		Geriatric Nursing Practice	
		M±SD	t(p) or F(p) scheffe	M±SD	t(p) or F(p) scheffe	M±SD	t(p) or F(p) scheffe
Age(Year)	<30	3.62 ± 0.40	2.41 (.093)	3.52 ± 0.77	0.31 (.736)	3.22 ± 0.43	1.81 (.167)
	30~39	3.66 ± 0.40		3.56 ± 0.90		3.30 ± 0.43	
	>40	3.87 ± 0.32		3.36 ± 1.03		3.42 ± 0.32	
Gender	Male	3.67 ± 0.39	0.16 (.874)	3.53 ± 0.92	0.08 (.938)	3.00 ± 0.42	-2.33 (.021)
	Female	3.65 ± 0.40		3.51 ± 0.82		3.28 ± 0.42	
Religion	Have	3.71 ± 0.43	-1.61 (.109)	3.45 ± 0.93	0.82 (.415)	3.30 ± 0.44	-1.13 (.260)
	Have not	3.61 ± 0.37		3.56 ± 0.76		3.23 ± 0.42	
Marital status	Single	3.61 ± 0.39	-2.03 (.044)	3.59 ± 0.78	2.03 (.044)	3.24 ± 0.44	-1.11 (.270)
	Married	3.76 ± 0.40		3.76 ± 0.40		3.30 ± 0.92	
Education level completed	College ^a	3.51 ± 0.42	5.12 (.007) a,b<c	3.77 ± 0.47	1.93 (.148)	3.29 ± 0.43	1.59 (.207)
	Bachelor ^b	3.62 ± 0.38		3.54 ± 0.80		3.23 ± 0.43	
	Master ^c	3.90 ± 0.42		3.21 ± 1.10		3.42 ± 0.41	
Work unit	Ward	3.58 ± 0.38	2.34 (.075)	3.56 ± 0.82	2.31 (.078)	3.26 ± 0.41	1.52 (.210)
	ER	3.62 ± 0.37		3.47 ± 0.63		3.10 ± 0.44	
	ICU	3.70 ± 0.44		3.65 ± 0.86		3.27 ± 0.46	
	Etc	3.80 ± 0.32		3.13 ± 0.87		3.36 ± 0.37	
Type of work	Non-shift	3.61 ± 0.40	-2.97 (.003)	3.59 ± 0.78	2.65 (.009)	3.22 ± 0.43	-2.55 (.012)
	Shift work	3.84 ± 0.27		3.16 ± 0.94		3.43 ± 0.36	
Working experience as a nurse (year)	≤5	3.63 ± 0.41	0.93 (.399)	3.48 ± 0.77	0.41 (.668)	3.25 ± 0.44	0.42 (.659)
	5), ≤10	3.61 ± 0.37		3.60 ± 0.83		3.24 ± 0.43	
	>10	3.73 ± 0.39		3.49 ± 0.95		3.32 ± 0.35	
Job position	Staff nurse	3.63 ± 0.40	-1.29 (.200)	3.53 ± 0.78	-1.29 (.200)	3.25 ± 0.43	-0.43 (.670)
	≥Charge nurse	3.75 ± 0.33		3.41 ± 1.05		3.29 ± 0.40	
Elderly cohabitation experience	Yes	3.70 ± 0.40	1.62 (.106)	3.48 ± 0.90	-0.56 (.579)	3.30 ± 0.44	1.31 (.193)
	No	3.60 ± 0.39		3.55 ± 0.75		3.22 ± 0.41	

3.4 대상자의 공감력,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 정도의 관계

대상자의 공감력과 노인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r=-.3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력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공감력은 노인간호실천과도 유의한 상관관계($r=.59,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력이 높을수록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았다. 또한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간호실천과 유의한 상관관계($r=-.30, p<.001$)가 있었고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았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of Empathy,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N=178)

Variable	Empathy	Attitude toward the Elderly
	r(p)	
Attitude toward the Elderly	-.33 (p<.001)	
Geriatric Nursing Practice	.59 (p<.001)	-.30 (p<.001)

3.5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 영향요인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노인간호실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성별, 근무형태와 노인간호실천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공감력, 노인에 대한 태도를 독립변수로 적용하였다. 명목변수인 성별과 근무형태는 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F 값이 28.30($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0.866-0.982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Durbin-Watson 값은 1.86으로 수용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여 자기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종합병원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력($\beta=.59, p<.001$)과 성별($\beta=.29, p<.04$)로 나타났고 이 두 변인의 노인간호실천에 대한 설명력은 38.2%로 나타났다. 공감력이 높을수록 노인간호실천 수준이 높았고, 성별이 여자인 경우 노인간호실천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5).

Table 5. Factors affecting subject's Geriatric Nursing Practice (N=178)

Variable	B	SE	β	t	p	VIF
Constant	1.03	0.32		3.23	.002	
Empathy	0.59	0.07	0.55	8.68	<.001	.86
Attitude toward the Elderly	-0.06	0.03	-0.12	-1.82	.071	.88
Gender*	0.29	0.10	0.18	2.95	.004	.98
Type of work*	0.03	0.07	0.02	.38	.702	.92

F=28.302, R2=0.396, Adj R2=0.382, p<.001.

*Dummy variable : 성별(여자=1), 근무형태(상근=1)

4. 논의

종합병원 간호사의 공감력은 5점 만점에 3.65 ± 0.40 점으로 간호사의 공감력을 측정된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12,28]. 노인에 대한 태도는 7점 만점에 3.52 ± 0.82 점으로 선행연구와 같이 간호사는 노인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29,30].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은 4점 만점에 평균 3.26 ± 0.43 점으로 측정되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3.10 ± 0.34 점[30], 3.04 ± 0.37 [31]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나 노인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1] 3.63 ± 0.31 점, 3.51 ± 0.41 점[21]보다 낮게 측정이 되었다. 이처럼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같은 급성기 병원의 노인간호실천이 노인 전문병원이나 요양 병원에 비해 낮은 이유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급성기 치료와 질병 중심 위주의 치료와 간호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30,31]. 또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노인환자 치료 시 대부분 보호자가 동반하고 노인환자의 식사 보조, 개인위생, 자가간호, 의사소통 등 직접적인 돌봄은 보호자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실정으로[28]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공감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상태, 최종학력, 근무형태로 확인되었다. 기혼 간호사는 미혼 간호사보다 높은 수준의 공감력이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12,32]. 공감은 결혼 관계 형성 및 유지에 기초가 되는데[33] 기혼 간호사는 결혼생활 유지를 통해 공감력이 강화되었다고 사료된다. 석사 이상의 간호사는 전문학사, 학사의 간호사보다 공감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경완 등[3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공감력은 경험, 학습을 통해 높아질 수 있는데 [12,34] 석사 이상의 간호사는 경험과 학습에 차이가 있

어 공감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상근근무의 간호사는 3교대 근무 간호사보다 높은 수준의 공감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Trevizan 등[3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교대근무 간호사는 비교대근무 간호사보다 수면 부족과 피로에 시달리고 교대근무 간호사의 피로는 간호사의 소진상태를 야기하며[36], 이는 직무 스트레스 증가, 직무몰입 저하로 이어져 대상자 간호에 무관심, 불친절로 이어진다는[37]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3교대 근무자의 근무 특성상 상근 근무자에 비해 공감력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3교대 근무자의 근무 특성상 상근 근무자에 비해 공감력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3교대 근무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교대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일반적 특성으로는 결혼형태, 근무형태가 확인되었다. 기혼 간호사는 미혼 간호사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로[27,38], 기혼 간호사의 양가 부모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노인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에 투영되어[39]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상근 근무 간호사는 3교대 근무 간호사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이는 교대 근무자의 피로와 수면부족으로[36] 인한 직무스트레스 증가, 직무몰입 저하가 대상자 간호에 무관심, 불친절로 이어지는데[37], 이러한 결과와 건강, 활동, 사회적 관계 및 인지기능의 손상까지 유발하는 교대근무의 부정적인 영향이[40] 합쳐져 간호 대상자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근본적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 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의 차이는 성별과 근무형태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노인간호실천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설정임[41]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이경주와 김미영[42]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간호사는 여자간호사에 비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이는 설정임[41]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이경주와 김미영[42]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간호사는 여자간호사에 비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낮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은 간호업무성과 저하로 이어지는데[43] 이로 인하여 성별이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남성의 수가 178명 중 13명 7.3%로 통계분석 결과 두 집단의 동질성은 확보되었으나, 표본 수가 적어 해석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근근무 간호사는 3교대 근무 간호사보다 노

인간호실천 점수가 높았다. 교대근무 간호사는 비교대근무 간호사보다 수면부족과 피로를 겪으며, 이는 간호사의 소진상태를 야기한다[36]. 간호사의 소진상태는 직무몰입 저하로 이어지며 간호 대상자에 무관심, 불친절로 이어져 대상자에게 효율적인 간호제공이 어려워진다[37].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인 사유로 3교대 근무 간호사는 상근근무 간호사에 비해 낮은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측정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 근무형태에 따른 노인간호실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을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공감력과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간호실천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력과 노인에 대한 태도 또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종합병원 간호사의 공감력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노인간호실천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남숙 등[28]의 연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노현진 등[44]의 연구,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영경과 권수혜[11]의 연구,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현과 박명화[4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사의 공감력은 근무기관의 크기, 분류와 관련이 없이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간호실천의 정도는 높아지는데 이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영경과 권수혜[1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공감력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노인돌봄태도를 연구한 김영경과 권수혜[4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에 종합병원 간호사의 공감력, 노인에 대한 태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증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공감력($\beta=.59$), 성별($\beta=.29$)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에 의한 노인간호실천의 설명력은 38.2%였다. 공감력이란 변수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11,28,41] 공감력은 대상자를 이해, 반응, 공감하며 다양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 정도 향상을 위하여 공감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공감력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공감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성별은 설정임[4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이는 여자간호사에 비

해 남자간호사의 낮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가 간호업무성과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43].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연구가 거의 없어 해석에 신중을 기하고 대상자를 확대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Samarasekera 등[47]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력 증진을 위한 교육은 가르치는 방식의 학습보다 성찰 연습, 이야기 치료 등의 학습자의 사고과정을 이끄는 방법과 역할 놀이 등의 경험적인 학습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회성 혹은 한가지 방식의 증재보다는 다양한 방식이 결합된 접근 방식이 더 나은 교육 결과를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학습법이 혼합된 공감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감력,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공감력과 성별이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증가하는 노인환자에 대한 간호요구도에 맞추어 종합병원 간호사가 양질의 노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연구결과를 통해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D시의 종합병원 간호사를 편의 표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에 신중함을 기하여야 한다. 연구기관과 지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반복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공감력과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호사의 공감력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정서적 영역과 관련된 사고 과정을 확장하고 경험적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혼합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제언한다. 둘째, 선행연구와 달리 성별이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일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기에 추후 대상자 확대를 통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2 Statistics of the elderly(2022), Available Form: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20896&pageNo=7&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Target=title&sTxt (accessed Dec. 16, 2022)
- [2] NHIS, 2021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Available From: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6300m01.do?mode=view&articleNo=1082940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accessed Dec. 16, 2022)
- [3] J. Y. Jung, Y. S. Yun, "Elder Care related Knowledge, Attitudes, Nursing Practice and Awareness of Elder Abuse in Geriatric Hospital Health Personnels", *J Korean Gerontol Nurs*, Vol.14, No.3, pp.233-241, 2012.
- [4] Geriatric Nurses Curriculum Council, Management of Geriatric Disorders I, Hyunmoon, 2019, pp.246.
- [5] H. S. Oh, H. S. Jeo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program: consist of knowledge about nursing care for elderly and elderly simulation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4, pp.1654-1664, 2012. DOI: <https://doi.org/10.5762/KAIS.2012.13.4.1654>
- [6] H. Day, "The meaning of compassion", *British Journal of Nursing*, Vol.24, No.6, pp.342-343, 2015. DOI: <https://doi.org/10.12968/bjon.2015.24.6.342>
- [7] C. Lamm, D. Baston, J. Decety, "The neural substrate of human empathy: effects of perspective-taking and cognitive appraisal",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Vol.19, No.1, pp.42-58, 2007. DOI: <https://doi.org/10.1162/jocn.2007.19.1.42>
- [8] B. Dewar, M. Nolan, "Caring about caring: Developing a model to implement compassionate relationship centred care in an older people care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50, No.9, pp.1247-1258, 2013. DOI: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3.01.008>
- [9] M. H. Lee,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 Dementia and Empathy as Predictors of Pain Assessment in Patients with Dementia: A Mediation Model", *J Korean Gerontol Nurs*, Vol.21 No.1, pp.41-49, 2019.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9.21.1.41>
- [10] J. H. Kim, H. S. Jeong, "Influencing Factor on the Attitudes toward Elders among Nurses Working at Geriatric Hospitals: Focusing on Empath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13, pp.840-850, No.12, 2013. DOI: <http://dx.doi.org/10.5392/IJCA.2013.13.12.840>
- [11] Y. K. Kim, S. H. Kwon, "Effects of Empathy and Attitude in Caring for Elders by Nurses in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Long-term Care Hospitals", *J Korean Gerontol Nurs*, Vol.19, No.3, pp.203-213, 2017.

-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7.19.3.203>
- [12] E. S. Song, *The factors of empathy for older patient in general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2015.
- [13] J. Dikken, J. G. Hoogerduijn, M. D. Lagerwey, L. Shortridge-Baggett, S. Klaassen et al., "Measurement of nurses' attitudes and knowledge regarding acute care older patients: Psychometrics of the OPACS-US combined with the KOP-Q", *Geriatric Nursing*, Vol.38, No.5, pp.393-397, 2017.
DOI: <https://doi.org/10.1016/j.gerinurse.2017.01.001>
- [14] K. B. Kim, J. B. Lim, S. H. R. Sok,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es Toward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3, No.1, pp.13-21, 2007.
- [15] S. H. Yoon, "The Relations of Nurses' Job Stress and Knowledge, Attitude and Care Behavior for Elderly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5, No.14, pp.593-600, 2009.
- [16] H. J. Song, "Long-term Care Hospital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J Korean Geriatr Soc*, Vol.16, No.3, pp.251-255, 2012.
DOI: <http://dx.doi.org/10.4235/jkgs.2012.16.3.114>
- [17] M. J. Gilmartin, "Thinking like a geriatric nurse: Integrating the 4Ms and the SPICES model to support age-friendly nursing care for older adults", *Geriatric Nursing*, Vol.41, No.5, pp.662-664, 2020.
DOI: <https://doi.org/10.1016/j.gerinurse.2020.08.014>
- [18] Y. H. Cho, *Care of the Older Adult*, Hyunmoom, 2009.
- [19] M. Bourbonniere, N. E. Strumpf, "Enhancing geriatric nursing competencies for RNs in nursing homes", *Research in Gerontological Nursing*, Vol.1, No.3, pp.171-175, 2008.
DOI: <https://doi.org/10.3928/19404921-20080701-03>
- [20] H. S. Kang, K. W. Sung,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Geriatric Nursing Practice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 Korean Gerontol Nurs*, Vol.17, No.1, pp.29-37, 2015.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5.17.1.29>
- [21] Y. J. Do, Y. S. Kang,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Moral Sensitivity on Elderly Care Performance of Geriatric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5, pp.128-136,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5.128>
- [22] M. S. Cho, Y. A. Kim, K. H. Kim, I. G. Kwon, M. S. Kim et al., "Development of Clinical Ladder System Model for Nurses: For Tertiary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21, No.3, pp.277-292, 2015.
DOI: <https://doi.org/10.22650/JKCN.R.2015.21.3.277>
- [23] E. L. L. Monica, "Construct validity of an empathy instrument",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4, No.4, pp.389-400, 1981.
DOI: <https://doi.org/10.1002/nur.4770040406>
- [24] E. S. Park, M. H. Suk, K. S. Jung, "A Study on the Empathy of Pediatric nurse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3, No.2, pp.142-153, 1997.
- [25] G. F. Sanders, J. E. Montgomery, J. J. F. Pittman, C. Balkwell,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3, No.1, pp.59-70, 1984.
DOI: <https://doi.org/10.1177/073346488400300107>
- [26] Y. S. Lim, J. S. Kim, K. S. Kim,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2, No.1, pp.31-46, 2002.
- [27] H. J. Choi, *The Research is Nurse of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for old age patient*,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002.
- [28] N. S. Seo, J. S. Moon, S. H. Hong, Y. H. Park, "The Influence of Attitude, Experience and Empathy on the Nursing Care of the Elderly Who Have No Caregive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0, No.2, pp.179-191, 2016.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6.10.2.179>
- [29] M. Y. Koo, S. H. Kw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Nurse's Attitude toward and Nursing Practice for the Elderly",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Vol.8, No.1, pp.1-14, 2015.
- [30] E. J. Kim, K. H. Lee,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of Nurses in a Tertiary Hospital toward Older Adults", *J Korean Gerontol Nurs*, Vol.22, No.2, 2020.
DOI: <https://doi.org/10.17079/jkgn.2020.22.2.165>
- [31] J. M. Park, *A Study on Influence of General Hospital Nurse's Attitude toward Elderl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Practice of Geriatric Nursing*,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Busan, Bunsan, 2012.
- [32] Y. S. Kim,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Nursing Performance of Nurs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2, pp.545-556, 2019.
DOI: <https://dx.doi.org/10.35873/aimahs.2019.9.12.049>
- [33] K. A. Jung, B. H. Kim, "Adult Attachment, Empathic 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31, No.1, pp.89-104, 2010.
- [34] G. W. Lee, K. S. Park, Y. H. Kim,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ing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Korean Medical Informatics*, Vol.20, No.1, pp.9-24, 2014.
- [35] M. A. Trevizan, R. G. D. S. Almeida, M. C. Souza, A. Mazzo, I. A. C. Mendes et al., "Empathy in Brazilian nursing professionals: A descriptive study", *Nursing Ethics*, Vol.22, No.3, pp.367-376, 2015.
DOI: <https://doi.org/10.1177/0969733014534872>
- [36] K. J. Chun, J. H. Choi, Y. R. Kim, S. O. Lee, C. H. L. Chang et al., "The Effects of both Shift Work and Non-shift Work Nurses' Empathy on Life and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3, pp.261-273,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3.261>

[37] J. Y. Shim, N. S. Seo, M. A. Kim, J. S. Pakr, “Influence of Job Stress, Sleep Quality and Fatigue on Work Engagement in Shift Nurse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7, No.4, pp.344-352, 2019.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9.27.4.344>

[38] E. J. Kim, K. H. Lee,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of Nurses in a Tertiary Hospital toward Older Adults”, *J Korean Gerontol Nurs*, Vol.22, No.2, 2020.
DOI: <https://doi.org/10.17079/jkgn.2020.22.2.165>

[39] M. J. Lee, J. S. Lee, “Nurses’ Experiences of the Death of 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5, No.4, pp 513-522, 2015.
DOI: <https://doi.org/10.4040/jkan.2015.45.4.513>

[40] P. G. Ozdemir, Y. Selvi, H. Ozkol, A. Aydin, Y. Tuluçe et al., “The influence of shift work on cognitive functions and oxidative stress”, *European Psychiatry*, Vol.28, No.1, 2013.
DOI: [https://doi.org/10.1016/S0924-9338\(13\)77370-X](https://doi.org/10.1016/S0924-9338(13)77370-X)

[41] J. I. Seol, J. Y. Seo, “The influences of general hospital nurse’s perception and empathy for the elderly on geriatric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Date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3, No.3, pp.413-426, 2022.
DOI: <https://doi.org/10.7465/ikdi.2022.33.3.413>

[42] K. J. Lee, M. Y. Kim, “The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up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ale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6, No.1, 2014.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4.26.1.46>

[43] E. Y. Kim, K. S. Lim, “The Research about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Performance in Hospital”,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1, pp.307-318, 2018.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11.030>

[44] H. J. No, E. J. Kim, S. H. Seok, “Influences of Nurses’ Empathy and Self-efficacy on Nursing Care of Older Adults in an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s (INCS) Unit”, Vol.25, No.1, pp.9-16, 2019.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9.25.1.9>

[45] H. Jeong, M. H. Park, “A Predictive Model on Patient-Centered Care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9, No.2, pp.191-202, 2019.
DOI: <https://doi.org/10.4040/jkan.2019.49.2.191>

[46] Y. K. Kim, S. H. Kwon,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 in Caring for Elders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1, No.5, pp.2673-2686, 2019.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19.21.5.2673>

[47] Samarasekera, D. D., Lee, S. S., Yeo, J. H., Yeo, S. P., & Ponnamparuma, G, “Empathy in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What works, gaps and areas for improvement.”, *Medical Education* Vol.57., No.1, 86-101, 2023.
DOI: <https://doi.org/10.1111/medu.14865>

이 보 램(Bo Ram Lee)

[정회원]



- 2016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2021년 8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2021년 7월 : 건양대학교병원 간호사
- 2021년 9월 ~ 현재 : 주빌리너싱 홈 노인전문간호사

<관심분야>

노인간호, 노인간호실천

임 효 남(HyoNam Lim)

[정회원]



- 2001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
- 2017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성인 및 노인간호, 암환자, 웰다잉, 웰에이징

이 미 향(Mi Hyang Lee)

[정회원]



- 2004년 2월 : 대전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대전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환자안전, 감염관리

이 경 화(Kyunghwa Lee)

[정회원]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학사)
- 2015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
- 2019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암생존자 간호, 압고위험대상자 간호, 증상관리, 건강관련 삶의 질